

예술이 넘치는 거리, 삿포로

안녕하세요! 한국 서울 출신의 윤소영이라고 합니다.

저에게 있어서 삿포로는 제 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학 4학년, 삿포로에서 교환유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분들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1년 간의 유학생생활을 즐겁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정말 삿포로의 거리,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언젠가 다시 삿포로에 오기로 결심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지금 현재 국제교류원으로서 삿포로시에 근무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.

오랜만에 찾은 삿포로는 익숙한 경치들로 저를 안심시켜주었습니다. 그러나 변한 건 아마도 제 자신. 학생시절에는 특별히 흥미를 갖지 않았던 곳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. 그것은 ‘예술’! 저는 바로 출근 첫날부터 예술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. 지하철역(버스센터앞역)에 내려 사무실로 향하는 지하도로에 다채로운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. 일부러 미술관까지 가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 언제나 지나치는 곳에서, 게다가 무료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이 곳은 예술작품을 즐기면서 조금은 우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.



정식명칭은 ‘삿포로오도리 지하갤러리 500m 미술관’입니다. 이 500m 미술관은 지하철 오도리역과 버스센터앞역을 잇는 지하도로 약 500m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시설내 통로에 설치한 갤러리로써는 일본 최장(最長)의 시설입니다. 시민이 예술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삿포로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를

국내외로 홍보해 갈 목적으로 2011년 11월 탄생하였습니다. 현재는 4번째 기획 ‘Excessive!-과잉화하는 표현-」을 주제로 신비적인 그림부터 이건 뭐지? 하고 의문을 품을 조형물까지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므로 훌쩍 발길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.

삿포로시중심부에서 조금 더 한 발 내딛으면 공원전체가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‘모에레누마 공원’이 있습니다. 마침 제가 유학했던 시기에 오픈, 당시에는 공원 따위 아무래도 좋았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4개월 동안 두 번(봄, 여름)이나 갔다왔습니다. 원래 쓰레기처리장으로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의 전체적인 공원설계에 의해 신록이 풍부한 공원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. 이 공원은 굿디자인



유리 피라미드

대상까지 수상하고 있습니다.



높이 62m 의 모에레산에 오르면
공원전체는 물론 삿포로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
보입니다. 저는 계속 꺼내놨던 카메라를 가방에
넣고 잠시 제 눈에 펼쳐져 있는 경치를
바라보았습니다. 무엇 하나 꾸밈없는 자연, 그
자체가 바로 ‘작품’이었습니다. 공원에서
느긋하게 편히 쉬며 예술도 접할 수 있는

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이라 할 수 있겠지요.

여러분, 살짝 멧을 낸다는 기분으로 삿포로의 거리를 걸어보시는 건 어떠세요?
삿포로시에는 예술 넘치는 시설과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. 홋카이도근대미술관을
비롯하여 삿포로시 미나미구에 있는 예술의 숲은 이름 그대로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
각종 예술시설이 점재되어 있습니다. 9 월에는 ‘삿포로국제단편영화제’, 11 월에는
‘삿포로아트스테이지’ 등의 이벤트가 개최됩니다. 삿포로에 오셔서 삿포로의 예술을 꼭
한 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

500m 미술관의 전시정보는 이곳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500m.jp/>

모에레누마공원에서는 이사무 노구치가 디자인
한 놀이시설과 모에레비치, 바다의 분수 등
다양한 시설이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
즐길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
봐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sapporo-park.or.jp/moere/>



바다의 분수, 모에레비치